

Instant comment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내용 및 주식시장 영향

- 이재명 정부는 6월 29일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AI 시대의 핵심 병목인 연산 인프라, 메모리 공급능력, 현실 산업 적용 역량을 동시에 확충하는 것. 단순한 개별 기업 투자 발표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거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제조업 AI 전환을 묶어 한국형 AI 생태계를 전국 단위로 재편하려는 산업정책 성격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내용

구분	핵심 내용	주요 수치·지역	산업·시장 함의
① 반도체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조성. 용인·평택 기존 클러스터는 조기 완공, 충청권은 HBM 후공정 거점으로 육성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800조원, 충청권 패키징 81조원.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삼성전자·SK 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초격차 유지. HBM, 후공정, 소부장, 전력반도체까지 수혜 범위 확장
② 피지컬 AI	제조업 AI 전환과 AI 로봇 상용화 추진. 데이터팩토리, 독자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로봇 부품 국산화가 핵심	매년 AI 로봇 1,000대 이상 보급. AI 로봇 인력 1만명 양성. 3년 내 독자 모델 개발	AI가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영역을 넘어 제조, 물류, 돌봄, 농업, 안전, 국방 등 현실 산업으로 확산
③ AI 데이터센터	SK·GS·네이버 중심의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 구축. 국산 NPU, 전력·냉각 솔루션, 클라우드 기술과 연계	2035년까지 총 18.4GW 목표	AI 학습·추론 수요 대응. 전력망, 냉각, 발전, ESS, 데이터센터 장비·솔루션이 핵심 병목이자 수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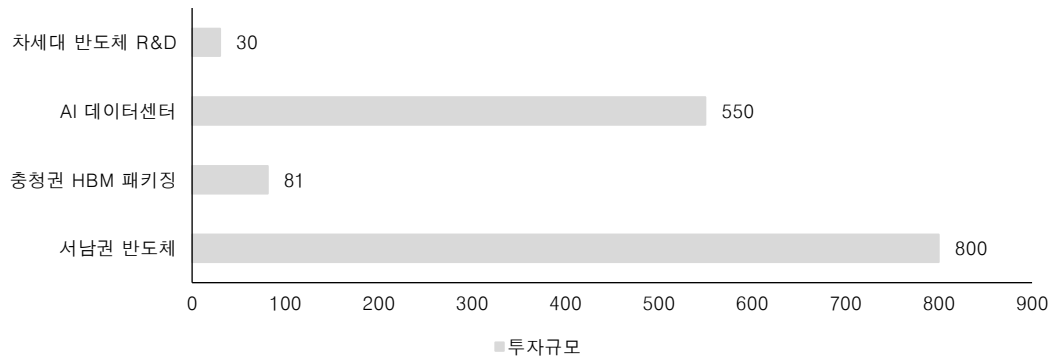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정책의 본질을 AI Capex 2단계로 해석 가능
- 1단계가 HBM과 메모리 가격 상승을 통한 반도체 대형주 주도였다면, 2단계는 데이터센터, 전력망, 발전·송전, 냉각, 로봇, 후공정, 소부장으로 AI Capex 전반에 투자 테마가 확산되는 국면.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AI 사용국이 아니라 AI Capex를 제조업 이익으로 흡수하는 공급국이라는 점.
-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발전설비, 2차전지를 동시에 보유한 드문 제조업 공급망. 미중 갈등 이후 중국 중심 공급망의 일부가 고부가·고신뢰 영역에서 한국으로 이전되는 점도 구조적 수혜 요인. AI 인프라 수요는 한국 제조업의 수출, 수주잔고, EPS 개선으로 전이되는 중. AI Capex는 GPU, 메모리 구매에서 끝나지 않는 사이클. 데이터센터가 커질수록 병목은 연산에서 전력망, 발전, 저장으로 이동하며, 한국 제조업은 이 물리적 인프라 사이클을 수출·수주잔고·이익으로 흡수. 반도체 중심으로 AI Factory 구축 과정에서 병목을 해소하는 K-제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풀스택 접근 필요

Instant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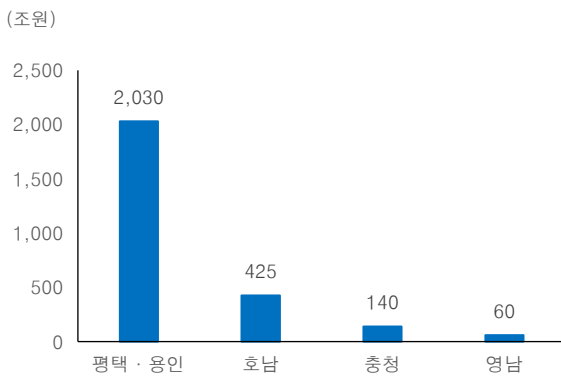
- 다만 실제 집행에는 전력·용수·부지·인력 확보가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도체의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단기적인 메모리 공급난 해소에 영향을 줄 순 없음. 따라서 단기 테마성 등락 요인은 아닌 만큼 단기 주가 반응은 투자 총액보다 실제 착공 속도, 전력 인프라 확보, 기업별 이사회 승인 및 수요 가시성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될 전망

정부 발표 투자 규모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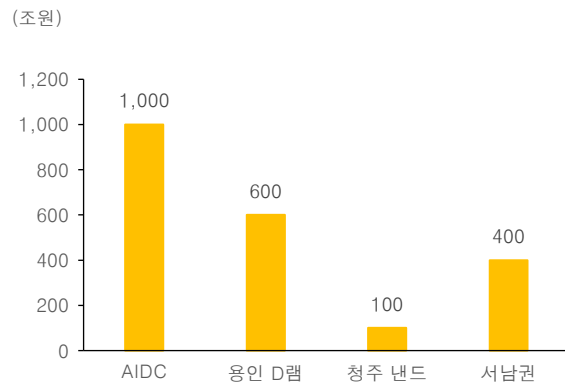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전자 투자 계획 규모(기존 투자 포함)



자료: 삼성전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K 하이닉스 투자 계획 규모(기존 투자 포함)



자료: SK 하이닉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nstant comment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